



IMA⁺ 98

신 재 인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주요

프리 헉슬리와 사이먼 홀버튼이 같이 지은 「밀레니엄 전쟁」이라는 소설을 보면 한 나라의 몰락을 다음과 같이 실감 나게 묘사하고 있다.

“복지 비용이 급상승하고 있고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도 경쟁력을 잃고 있었다. 고임금과 낮은 근무 의욕, 종업원들의 안일한 태도, 말싸움이나 하는 정치계,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시장,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게다가 관료주의까지 있었다”

97년 한 해 명멸하였던 햇살은 그 생명을 다해 가면서 급격하게 어둠을 불러오고 있다. 한 나라의 재무 정승이 외국에 나가 돈을 얻기 위해 구걸 외교를 하고 국민들은 예전에 몸에 밴 내핍을 다시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엘니뇨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맞는다는데 마음 속은 극치를 해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라 안타까워 한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미리 겁을 준 사람도 없었다. 그저 잘되는 것으로, 태국이나 멕시코는 우리와 전혀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해외 관광이나 하면서 세계 속의 한국을 우뚝 솟게 하면 나라 위한 모든 일을 다한 것으로 이야기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재무 정승이 새롭게 바뀐 뒤부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았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옆에 있던 회사가 하루 아침에 도산하고 주가는 추락하고 달러 환율이 천장을 향해 뛰었다. 그리고 세모의 나라는 감원과 감량과 동결의 어수선했음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I AM

F(IMF)'가 되었다.

실제로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방만한 소비, 기업의 중복 투자, 부실하고 전근대적인 금융 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고 때를 맞추어 실행하지 못한 우리의 무책임·무소신·게으름(복지 부동?)을 탓하는 소리도 높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남이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정부와 정치계와 산업계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외신은 이야기한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12월 1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당사국 회의는 유럽연합의 강력한 이산화탄소 감량 요구로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각별한 관심을 둔 회의였다. 만일 유럽연합의 요구처럼 각국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90년 기준으로 15%를 감축하기로 합의한다면 각국은 석유·석탄·천연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

따라서 그 여파로 국내의 에너지의 값이 폭등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에너지를 다 공급할 수 없어서 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활동을 상당히 마비시키게 된다.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 문제가 잘못하면 모처럼 7년 동안 누리고 있는 경제적 호황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항목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대통령직접 주관해서 관련된 기술·외교·경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원자력 활용 증진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

고 그 내용을 인터넷이나 정부 문서에 게재해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반응을 수렴하고 있다.

장기간 공개적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전형적인 미국식 정책 추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기후변화협약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이 미국보다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대응 정책의 개발은 원활하지 못하고 단지 환경 관련 단체들의 홍보성 세미나와 언론 보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일도 역시 우리가 미래에 맞을 커다란 장애물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한 또 하나의 적절한 사례가 된다.

그 동안 우리의 원자력계가 추진해 왔던 독자적 기술 능력의 확보는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우리의 경제 개발처럼 개발 도상국간에 표준 모델로 예시되어 왔다.

금년에는 특히 우리의 표준 원전이 들어갈 북한의 금호 지구에 우리의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공사를 착수하는 기념식까지 올림으로써 원자력 기술이 조국 통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연말에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적 관계 개선에 따라 잘하면 우리의 표준 원전도 중국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고속 증식로를 포함해서 어떤 변화를 맞을 징조가 보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 효과의 감소를 위해서 원자력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우리의 원자력 국제 협력은 더욱 활기를 띠 전망도 보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미래는 썩 밝은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Hamish McRae가 「2020년의 세계」에서 우려한 대로 깨질 듯한 동남 아시아의 경제가 실제로 침몰되면서 이 지역에서 추진되어 왔던 원자력 활용의 의욕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만 해도 금년의 경제적 위축은 에너지 사용의 증가세 둔화, 원전 건설의 지연으로 연결됨으로써 원

자력 산업의 정체를 부르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원자력계는 잘못하면 드높은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나 할 일 없어 모든 생산적 활동을 정지시켜 버린 고급 실업자의 신세로 타락할 가능성도 안게 되었다. 만일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원자력 기술 개발 신화도 한낱 날개 없이 추락하는 현경제의 동반자가 될 것이고 외국으로부터 또 한번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쪼개어 우리만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기존 기술의 보완에 전력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더 높이고 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일은 일차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아래에서도 과감하게 연구에 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하려는 참된 경영자적 자질이 있는 원자력계 리더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차기 정부의 정책 입안 전문가들의 조국 재건의 사명감에도 맞물려야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원자력계의 긍정적 분위기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기본 산업 구조가 튼튼한 우리 경제가 단숨에 회복하여 모두의 안녕과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발화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에 원자력계만큼은 협력하고 단결해서 북한의 원전도 잘 짓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우리의 표준 원전도 수출하고 새로운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원전도 개발하고 원자력의 의학적·산업적 활용 폭도 넓고 크게 만들어으로써 98년을 바로 I AM A+로 우리의 입지를 되살리는 해로 만들었으면 하고 소망한다.

질은 어둠을 동반한 저녁은 항상 찬란한 새벽을 맞는다. 단지 우리의 깨어 있음이 필요할 뿐이다.

97년의 어둠이 밝고 희망찬 원자력계의 새벽으로 연결되기를 깊은 마음으로 염원한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해 본다. ☺